

여수시, 양식어류 저수온 피해조사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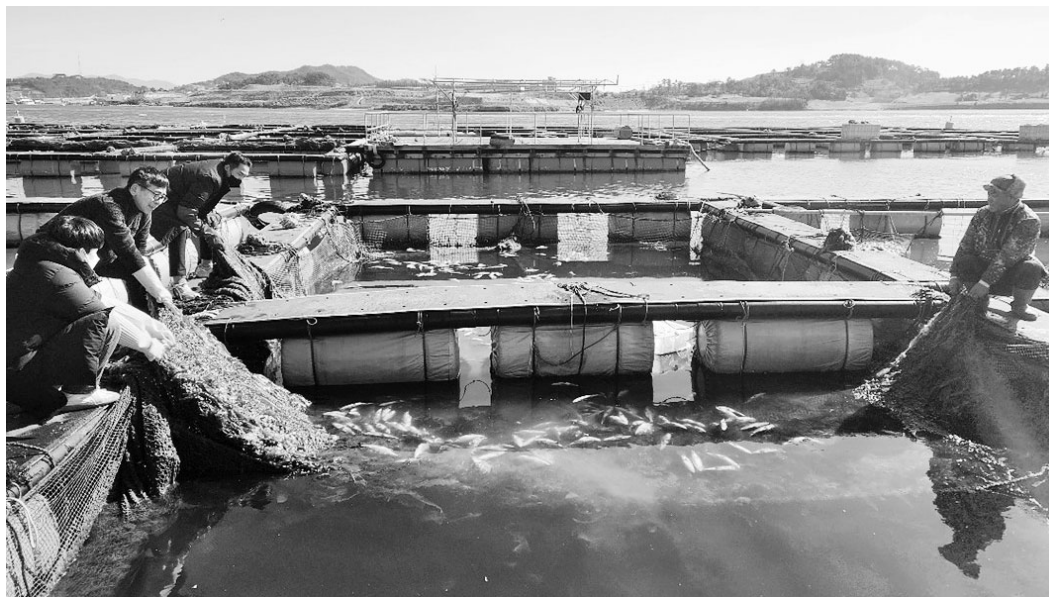
64건 접수·345만여 마리 폐사 폐사량 정밀조사...피해 복구 총력 예방책 마련 위한 연구용역 착수

지난달 말부터 여수 해역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생한 어류 집단 폐사 원인이 저수온으로 판명되면서 여수시가 폐사 현황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선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발생한 여수해역 양식어류 집단 폐사 피해는 모두 64건 접수됐다.

여수시 돌산읍과 남면, 화정면, 월호동 등 64여 개에서 모두 345만여 마리가 폐사했다. 피해액은 92억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2017~2022년) 여수지역 어업재해를 입은 262가구 가운데 43.1%에 달하는 113가구가 저수온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저수온 피해 금액은 48억7800만원으로, 전체 피해액(100억4300만원)의 절반 가까이 비중(48.6%)을 차지했다.

지난 2018년에는 여수에서만 93개 어가가 저



저수온으로 인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한 여수해역 가두리 양식장에서 어민들이 폐사한 어류를 수거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수온으로 인해 36억170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여수시는 지난 3일 국립남해수산연구소, 전남

도해양수산과학원 등과 심의를 벌여 이번 양식어류 폐사 원인을 저수온으로 판정했다.

올해 초 불어닥친 한파로 수온이 갑자기 떨어지

고 풍랑도 거세지면서 물고기들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 폐사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수시 여자만에는 지난해 12월부터, 가막만에는 지난 1월부터 저수온 특보가 내려졌다. 3개월에 걸쳐 내려진 저수온 특보는 지난 6일자로 모두 해제되면서 추가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고 있다.

시는 10일까지 유관 기관·단체와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지역별 폐사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6일에는 돌산읍과 화정면에서 조사하고, 7일에는 남면 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세부 복구계획을 수립해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폐사한 어류 50t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량 수거한 뒤 매몰 처리해 해양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피해 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해 어업인 피해 최소화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저수온 피해 예방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청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세계차엑스포

'블랙이글스 에어쇼' 본다

4월29일 오후 3시 개막식

보성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회가 '2023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 개막식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최근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개막식은 오는 4월29일 오후 3시 보성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블랙이글스는 이날 20여 분간 차엑스포 행사장 상공을 날아오른다. 올해 들어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전남지역에서는 보성에서 처음 열린다.

블랙이글스는 1967년 창설된 공군특수 비행팀이다. 최근에는 '2023 호수 애벌룬 국제 에어쇼'에 참가해 종합 최우수상을 받아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보성세계차엑스포 공동위원장인 김철우 보성군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군 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보성세계차엑스포와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소음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세계차엑스포는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9일간 한국자문회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 연흥도, 어촌체험 휴양마을 고도화사업지 선정



스마트 연흥센터 전경.

4억원 투입...해양캠핑 등 조성

스마트 연흥센터에 태양광 설치

고흥군 연흥도가 해양수산부의 '2023년 어촌 체험 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고흥군에 따르면 고도화 사업 공모에 전국에서 10개 마을이 응모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의 서면·현장 평가를 통해 고흥 연흥도와 강진 서중 등 전남 2곳 등 전국 4개 마을이 선정됐다.

군은 국비 2억원을 포함한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의 대표 숙박시설인 해양 큐브펜션을 새롭게 단장하고, 갯벌 공간을 활용한 '해안길 바다정원'과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바다별 해양 캠프'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과 도시민 대상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마을 관광시설인 스마트 연흥센터에 효율적인 에너지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탄소중립 섬'으로 변모도 꾀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구례군, 평생학습도시 지정 '쾌거'...평생학습 체제 구축

학습 활동가 양성 등 교육 박차

구례군이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돼 주민들의 직업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생학습 도시란 개인의 삶의 질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된 도시다.

군은 옛 매천도서관을 '평생학습 허브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건축설계에 들어갔다. 평생학습 허브센터에서 30개의 마을 학교 지정, 300명의 평생학습 활동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지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는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할 평생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허브

센터로 성장할 예정이다.

군에서도 평생학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마다 찾아가는 한글 교실을 포함해 평생학습 마을 학교와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평생학습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청년과 시니어,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인건 대학과 연계해 전문 취·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한다는 전략이다.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사업별 학습동아리 조직, 맞춤형 직업교육, 각 주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평생학습 축제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소

득이 창출되는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선순환 평생학습 체제도 구축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평생학습 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평생교육사 채용, 평생교육 협의회 구성,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스타트업 체제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평생학습 도시 선정을 계기로 주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고 나아가 평생학습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직업교육 등으로 지방소멸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청년이 돌아오는 구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정인화(왼쪽 두 번째) 광양시장과 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지난 8일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자보전 방식 최대 3% 이자 지급

광양시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연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광양시는 지난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남권본부, NH농협은행 전남본부, 신한은행 전남동부권본부 등과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양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차보전 방식으로 연 최대 3%의 이자를 지급한다.

주택 구입의 경우 연 최대 300만원씩 최장 10년간, 전세(임대)의 경우 200만원씩 최장 8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된다.

협약을 맺은 4개 기관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운용기준, 자료 제공과 정보 이용, 협약 변경·해지 등을 조율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연 소득 금액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기간을 늘리자는 내용을 담았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협약사항 중 하나인 청년복지 증진을 위한 광양시와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인화 광양시장은 "최근 주택 가격과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거 마련이 힘든 청년들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를 포함한 4개 협약기관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돈돈한

실손의료보험!

지키자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